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14:12-15
2026 년 1 월 4 일 오전 11 시

추락하는 것은 교만이 있다

< 주여 도우소서 >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천체는 태양과 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창 1:16). 태양은 큰 광명체로, 달은 작은 광명체로 불렸습니다. 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밝게 빛나는 광명체들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대홍수 이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에서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달은 남신으로, 금성은 여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수메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도 금성을 여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금성을 이쉬타르(Ishtar)라고 불렀는데, 이쉬타르는 사랑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여신입니다. 수메르와 바벨론에서는 금성이 새벽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 되기도 하고 저녁에 밝게 빛나는 저녁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성은 584 일을 주기로 저녁별이 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이후 다시 새벽별(Morning Star)이 되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후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저녁별과 새벽별이 서로 다른 별로 생각했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두 별이 같은 별이라는 것과 그 주기가 584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쪽 하늘에 나타나 가장 밝게 빛나다가 사라진 후 어느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나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인 금성은 서로 상반되는 성향 때문에 사랑의 여신이 되기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여신 이쉬타르는 생명과 파괴를 동시에 지닌

양면성을 가진 여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왕들이 태양신의 아들로 믿어진 반면, 바벨론의 왕들은 여신 이쉬타르의 현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즉,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금성을 여신 이쉬타르로 부른 것과 같이 로마도 금성에 여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의 여신 베누스(Venus)입니다. 영어로는 비너스(Venus)입니다.

한편, 동양 한자문화권에서는 금성을 太(클 태), 白(흰 백), 星(별 성)을 써서 태백성(太白星)으로 불렀습니다. 태백성이 새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새벽을 여는 밝은 별’이라는 뜻으로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새벽 또는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 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표현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열국을 엮은 자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의 일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4 절).

바벨론 왕은 열국을 엮은 후에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13 절). 그래서 하늘에 오르고,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중근동에서는 신들이 북쪽 끝에 있는 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시온 산이 북방에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시 48:2). 바벨론 왕은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곳에 자신도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14 절). 이상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서로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각종 이론과 사상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였던 인간은 타락과 추락을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바벨론 왕은 스올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사 14:15). 스올은 땅 아래 지하 세계이자 죽은 자의 세계로,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해도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도 죽어서 스올에 내려갈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은 교만한 바벨론 왕의 추락에 대한 조롱입니다.

허나 오늘 본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탄의 추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추락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사도 요한도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음을 증언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또한 앞으로 무저갱에 갇힐 운명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2-3).

추락하는 것은 교만이 있다(사 14:12-15)

반면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받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계 2:28). 여기에서 새벽별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 2:26).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벽 별, 곧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나누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뿐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명한 새벽 별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사탄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서는 높아지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9-1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과 지상 세계에 있는 모든 산자들과 지하 세계인 스올과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광명한 새벽 별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을 높였던 사탄은 추락하여 떨어졌고,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은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교만이 있다(사 14:12-15)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교”(막 9:35).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함으로 높임을 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li Deo Gloria >